



1946년 3월 창간 제 257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6일 (음력 7월 27일) 목요일

# 湖南新聞

## 전남 서남부 여객선 노후화 심각…20년 이상 24%

전남 서남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10척 중 2척 이상이 선령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선박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목포와 완도지역을 깃점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71척 중 선령 20년 이상이 17척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특히 목포~홍도와 목포~제주 등 황금항

로를 운항하는 11척 중 10척이 20년 이상됐으며, 나머지 1척 미자 선령이 16년에 달했다.

또 선령 10~20년은 21척(29.6%), 1~9년은 33척(46.5%) 등 평균 선령은 11.37년으로 나타나았다.

운항 주체별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령이 낮은 반면 민간 여객선은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여객선에 대해서는 여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대화 펀드와 이자보전 등을 통해 여객선사의 자금문제를 해소하고 여객선 건조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목포~홍도·제주 황금항로 11척 중 10척 20년 넘어

목포해수청 “펀드·이자 보전 등 현대화 사업 유도”

목포해수청은 노후 여객선에 대해서는 여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대화 펀드와 이자보전 등을 통해 여객선사의 자금문제를 해소하고 여객선 건조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평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목포를 찾는 여객선 이용객이 연간 600여 명에 이르는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면서 “20년 넘은 일부 차도선과 카페리 등에 대해서는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춘 전남서부취재본부장



가을로 향하는 강진만생태공원

올해 여름 이후 처음으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진 5일 오전 강진군 강진만생태공원에서 주민들이 선선한 날씨 속에 길대 길을 걷고 있다. 1131종의 생물 서식이 확인된 이곳 강진만생태공원에서는 10월 12일부터 사흘 간 제25회 남도 음식 문화 축제가, 10월 20일부터 9일간은 ‘강진만 춤추는 길대 축제’가 개최된다.

## 전남도 공공시설·건축물 건립비용 공개된다

### 도의회 조례발의

전남도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내 5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이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2017년도 전남도 총 공사계약은 187건 3088억원이며, 이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5억 원 이상 공사는 74%인 총 139건 3081억 원이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의 재정자립도와 청렴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청렴 전남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제325회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 광주시, ‘물폭탄 피해’ 백운·주월동 하수도 정비

### 재난관리기금 등 투입, 내년 우기 전 마무리 예정

광주시가 폭우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지역은 지난 8월 27과 31일 두 차례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남구 주월동과 백운동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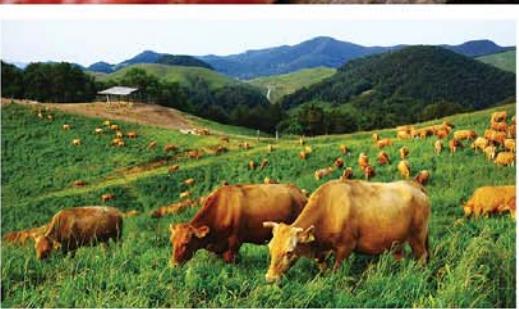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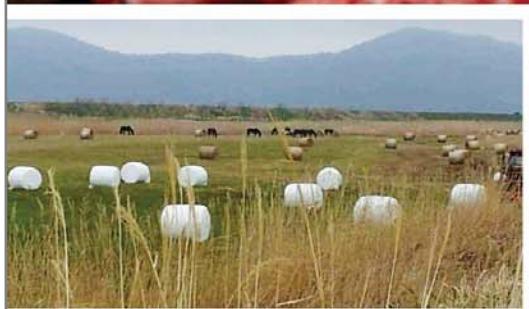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지하철 2호선 착공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용석 시장이 전날 시·구 상생회의에서 남구청장 견의를 받아들여 백운광장 주변 대남대로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지시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중 사업을 시작해 내년 장미절이 오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용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6일에는 남구청에서 주민 대표와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값싸고 질 좋은 장흥한우

